목 차

1강

1. 黃玹(황현)의 梅泉野錄(매천야록) ····· 2
2. 李建昌(이건창)의 討逆疏(토역소) ····· 6
3. 金澤榮(김택영)의 安重根傳(안중근전) ····· 10

2강

4. 孫秉熙(손병희)의 三戰論(삼전론) ····· 17
5. 韓龍雲(한용운)의 朝鮮佛教維新論(조선불교유신론) ····· 22
6. 申采浩(신채호) ····· 27

1. 黃玹(황현)의 梅泉野錄(매천야록)

梅泉野錄

八月二十九日 丙寅(庚戌七月二十五日). 併合韓國於倭, 改韓國國號曰朝鮮, 統監府曰朝鮮總督府, 韓國大臣以下諸官吏, 始屬之, 使整理殘務.

한국이 왜국에 병합되었다. '한국'이란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고치고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고쳐 부르고, 한국 정부의 대신 이하 모든 관리들이 총독부에 소속되어 잔무를 정리하게 하였다.

倭皇詔曰 : 朕念東洋平和永久維持, 帝國安全將來保障之必要, 又常顧韓國禍亂之淵源, 曩者期以朕之政府與韓國政府, 使之協定, 置韓國於帝國保護之下, 以杜絶禍源, 確保平和也.

왜국의 황제는 다음과 같은 詔勅(조칙)을 발표하였다. "짐은 동양의 평화가 영구히 유지될 것과 (일본)제국의 안전과 장래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고, 또 항상 한국의 병폐와 어지러움의 근원에 대해 고민하였다. 지난날에 짐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정을 맺게 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의 보호 아래 둔 것도 병폐와 어지러움의 뿌리를 끊어 평화를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爾來, 經過四年有餘, 其間朕之政府, 銳意努力, 韓國施政之改善, 其成績亦有可見者, 然韓國之現制, 尚未完治安之保持, 疑懼之念, 每時充溢於國內, 民不安其堵, 苟爲維持公共之安寧, 增進民衆之福利者, 瞭然至其革新現制之不避也.

그때로부터 4년 남짓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짐의 정부는 정성을 다하여 한국의 시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 그 성과가 얼마간 볼만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제도로는 여전히 치안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근심스러운 생각이 항상 나라 안에 가득하여 백성들이 편안하

게 지내지 못한다. 진실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분명코 현재의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朕與韓國皇帝陛下, 鑑此事態, 念不得已, 有擧韓國而倂合於日本帝國, 以應勢時之要求者也. 玆使韓國永久倂合於日本帝國, 韓國皇帝陛下及其皇室各員, 則雖倂合之後, 當受相當之優遇也. 民衆則直接立於朕綏撫之下, 增進其康福也, 產業及貿易, 則使至見治平之下顯著之發達也.

(그리하여) 짐과 한국 황제 폐하는 이 사태를 깊이 인식하고 어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기로 하였으니 이것은 대세를 따르는 시대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다. 이에 한국을 영구히 일본제국에 병합시키는 바이며 한국 황제 및 황실의 모든 분들은 비록 병합된 후일지라도 마땅히 상당한 예우를 받을 것이다. 또 민중은 곧바로 짐의 보살핌 아래 있게 되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며 산업과 무역은 태평한 통치 아래 두드러진 발달을 보게 될 것이다.

東洋平和, 依此尤爲鞏固其基礎者, 朕所信之不疑也. 朕特置朝鮮總督, 使承朕命, 統率陸海軍, 總轄諸般政務, 爾百官有司, 克體朕意而從事, 施設緩急得其宜, 使庶衆期賴永遠治平之慶.

동양의 평화는 이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임을 짐은 믿어 의심치 않노라. 짐은 특별히 조선 총독을 두어 짐의 명령을 받들게 하고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여 제반 업무를 두루 관장케 하였으니, 모든 관리와 공무를 맡은 이들은 짐의 뜻을 받들어 업무에 나아가 일을 처리함에 크고 작은 일을 정도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일반 백성이 영원히 태평한 정치를 깊이 신뢰하고 축하하도록 하라.

倭皇名御璽(中略)

冊韓國皇帝爲王, 稱昌德宮李王, 皇太子爲王世子, 太皇帝爲太王, 稱德壽宮李太王, 各后妃爲王妃 · 王太妃 · 世子王妃

왜국 황제의 이름과 어새가 찍혔다.(중략)

한국 황제는 '왕'으로 책봉하고 '창덕궁 이왕'으로 부른다. 황태자는 '왕세자'로 하고, 태황제는 '태왕'으로 하여 '덕수궁 태왕'으로 부른다. 각 후비는 '왕비', '왕태비', '세자왕비'로 한다.

李堈 · 李熹, 爲公爵.

依定在外指定學校職員任免, 及韓國軍人, 及居留地事項.

襲用韓國政府財政.

改正稅關及法律而大赦.

韓亡, 前進士黃玹, 仰藥死之.

이강 이희는 공작으로 삼는다.

재외에 지정된 학교 직원의 임면 및 한국군인 및 거류지의 사항은 이미 정한 바에 따른다.

한국 정부의 재정은 과거의 관례대로 시행한다.

세관과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큰 사면조처가 내렸다.

한국이 망했다. 전 진사 황현은 약을 마시고 죽는다.

【마무리 하며】

이 매천야록 끄트머리에 絶命詩(절명시) 4편이 덧붙여 있다. 그 가운데 인구에 회자되는 제3편 하나를 감상해보자.

鳥獸哀鳴海岳嚬(조수애명해악빈)

槿花世界已沉淪(근화세계이침윤)

秋燈掩卷懷千古(추등엄권회천고)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 바다도 찡그린다
무궁화 삼천리가 허무하게 무너졌네
등잔불에 책을 덮고 역사를 돌아보니
어렵구나, 이 세상을 지식인으로 사는 일이여!

그러나 매천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근심하는 선비의 책상머리에서 이 시편을 낭랑하게 읊조리며 우리들의 겨레 사랑의 넋을 일깨우고 있다. 만일에 1910년 그 국치의 날에 매천이 있어 자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조선조 518년에 어떻게 참다운 유생이 있었다 말할 것이며, 21세기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문화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인가!

2. 李建昌(이건창)의 討逆疏(토역소)

討逆疏(請討復疏)

嗚呼! 粤在聖上初服 我神貞王后 親揀令族 聿求元妃 俾佐我聖上 承宗廟 子萬姓 迄三十年. 受天之祜 誕育元良 用啟我丕基 惟休惟恤 咸與共之. 中經百變 亦旣備嘗. 自昨年以來 隣嘖外訌 逆圖內蔓 雖聖上之威斷尙有不能自由者 況在宮壺之內 安有過失之可言? 藉或有之 以聖上齊體之義 念東宮止孝之情 何忍遽至於廢降乎?

아하! 지난날 聖上(성상)께서 처음 임금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 神貞王后(신정왕후, 고종의 양모요, 순조의 아들 곧 효명세자 익종의 비, 조대비)께서 친히 이름난 집안에서 간택하고자 하시어 오직 元妃(원비, 곧 민비)를 구하시어 우리 성상을 도와 종묘를 받들고 만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게 하신 지 어느 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 元良(원량, 태자)을 탄생하여 기르게 되시고 우리나라의 크고 큰 기초를 마련하시면서 좋은 일이나 궂은일이나 모두 함께하여 오셨습니다. 중간에 백 가지의 변고를 겪으면서도 역시 한결같이 함께 지내시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웃나라(일본)가 밖으로는 난리[淸日戰爭(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역적들의 음모는 안에서 뻗어 가는지라, 비록 성상께서 위엄 있는 결단을 내리셔도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바가 있었던 차에 더군다나 궁월의 안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어찌 과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여 있다고 하더라도 성상과 齊體(제체, 곧 동등한 부부)로 지내신 의리에 (또한) 東宮(동궁)의 지극하신 효도의 情理(정리)를 생각하신다면 어찌 차마 급작스럽게 廢庶人(폐서인)하여 강등하는 일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겠습니까?

然則今者之擧 決知非聖上意也. 嗚呼! 窮天地而所未覩 亘萬古而所未聞 道路相傳 萬口洶洶 皆以爲二十日之變 賊已行弒 但未辨賊之爲我人爲日本人而已.

그러므로 오늘날의 이 조처는 결코 성상의 참뜻이 아님을 알겠습니다. 아하! 천지가 끝난다 하여도 볼 수 없는 일이요, 萬古(만고)에 걸쳐서도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만백성의 입에서 물 끓듯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스무날의 변고 때문 이온데 역적들이 이미 (왕비를) 弑害(시해)하였으나 단지 그 범인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가 변별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禮曰: "臣弑其君 在官者殺 無赦" 又曰: "居君父之讐 不與共天下 不反兵而鬪" 春秋之例 小君猶君也. 彼閣部諸大臣以下在廷者 獨不知斯義乎? 奈何掩匿覆盖 經旬閱月 恝然若無事 毋乃其中亦有貪禍幸變 以售其脅上制下 竊權逞勢之計者耶? 不然則是不過姑息之說. 其必以爲復讐尚可緩 激變不可再. 設使變之再激 何以加於二十日? 加於二十日 則有亡而已. 然不激而不亡 庸有愈於激而亡乎? 且我之所大恐積惴者 強隣耳. 然日本人 雖異於廷臣 外臣亦臣也. 果有其犯 獨不可以伏我法乎? 至如訓鍊兵 則雖其獍凶猘狂 是特朝鮮人種耳. 剛之則斯剛矣 礪之則斯礪矣. 萬民之輿情如沸 萬邦之公議四發 彼亦安敢復激?

禮記(예기)에 이르기를 "신하가 그 임금을 弑害(시해)하였으면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자를)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임금과 아비의 원수가 있으면 (그자와는) 더불어 같은 하늘 아래 있지 아니하고 兵器(병기)를 골라잡을 틈도 없이 싸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春秋(춘추)의 예를 보면 小君(소군, 임금의 배필)도 역시 임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 내각 각 부서에 있는 모든 대신 이하 조정에 있는 사람들만 오직 이러한 의리를 알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쉬쉬 숨기고 덮어 두면서 열흘이 지나고 달이 바뀌도록 태연스레 아무 일 없는 듯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중에는 殃禍(앙화)를 좋아하고 變故(변고)를 다행이라 여기면서 임금을 협박하고 신하들을 제압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권력을 도둑

질하고 세도를 부리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姑息(고식)의] 생각으로 복수는 오히려 천천히 할 수 있어도 격변은 두 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설사 변이 두 번째로 일어난다 하여도 어찌 스무날의 변고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스무날의 변고보다 더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망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격변이 아니 일어나고 망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이) 어찌 격변이 일어나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은 저 강한 이웃뿐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우리 조정의 신하와는 다르다고 해도 외국인 신하도 역시 신하입니다. 과연 (그중에) 범인이 있다면 유독 (그가) 우리나라 법에 복종치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대의 병사 같은 자들이 아무리 미친개처럼 흉포하게 날뛴다 해도 이들도 조선인종일뿐이옵니다. 죽여야 할 것이면 죽일 것이요, 짓밟아야 할 것이면 짓밟아야 할 것입니다. 만백성의 여론이 물 끓듯 하고, 온 세상 나라의 公議(공의)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저들이 어찌 감히 또다시 격변을 일으키겠습니까?

要之 作賊者 在兵 則兵可誅也. 在廷臣 則廷臣可誅也 在外國 則外國人亦可誅也. 匹夫匹婦之死 而不得其命者 猶無不償之寃 豈有國母被弑 而讐終不復者乎? 嗚呼! 變後今十餘日 上自儲宮 下至臣庶 尚不能發一聲哭 掛一縷麻 天理人情 胡寧忍斯?

요컨대, 역적질한 자가 병졸 가운데 있으면 그 병졸을 목 베어 죽일 것이요, 조정 신하들 가운데 있으면 그 조정 신하도 역시 목 베어 죽일 것이며, 외국인 가운데 있으면 그 외국인도 역시 목 베어 죽여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부부 사이라도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 억울함을 보복하고자 아니할 수 없을 터인데 어찌 나라의 국모가 시해를 당하였는데도 마침내 그 원수를 갚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변고가 난지 열흘이나 되었으나 위로는 태자로부터 아래로는 신하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울음 한 번 내지 못하고 베옷 한 오라기도 걸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천리나 인정에 어찌 차마 이럴 수 있습니까?

伏願聖上 亟下明命 還收廢后勅令 備禮發哀 仍行鞫覈 以伸討復 俾八域臣民 少泄貫穹徹壤之慟焉. 嗚呼! 臣等俱以世祿厚蒙恩造 値茲凶變 宜死不死 跧伏窮澨幷闕奔問 籲天痛哭 不能自已. 三十年臣事之義 言止於此 惟聖上矜諒焉. (下略)

엎드려 원하옵니다. 성상께서는 속히 밝은 명령을 내리시어 후를 폐한다는 勅令(칙령)을 거두시고 예를 갖추어 초상을 지낼 것을 발표하시며 친히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시어 역적을 징벌하여 보복을 하심으로써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하늘에 닿고 땅속까지 사무친 서러움을 씻어내게 하옵소서. 아하! 臣(신) 등은 모두 대대로 祿(녹)을 받으며 깊이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흉변을 당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나 죽지 못하고 시골구석에 엎드려 있으면서 대궐로 달려가 위문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음을 이기지 못할 뿐입니다. 30년이나 신하 노릇한 의리로 여기까지만 아뢰오니 오직 성상은 가엾게 여기시고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하략)

【마무리 하며】

이 討逆疏(토역소)는 「梅泉野錄(매천야록)」에 실려 전한다. 민비는 그해 10월(음)에 다시 復位(복위)되거니와, 한심스러웠던 그 시절의 조정풍토를 생각하면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한다.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이 바뀐 뒤에 明成皇后(명성황후)로 시호를 받은 민비에 대해 연민의 정을 금치 못하지만, 「梅泉野錄(매천야록)」을 보면 그 분의 非行(비행)이 만만치 않아 씁쓸한 감정 또한 숨길 수 없다. 왕비의 신분으로 한 때 국정을 좌우했으니 功過半半(공과반반)이라 해야 할 것인지 …….

아하! 조선왕조, 구한말의 근대화가 자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대한제국의 비극적인 말로는 그렇게 허망하고 悽然(처연)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역사에 萬一(만일)을 붙이지 말하는 원리를 어기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自歎(자탄)을 하는 것, 또한 정말로 한심스럽다.

3. 金澤榮(김택영)의 安重根傳(안중근전)

安重根傳

安重根 小名應七 以其胸有七黑子也. 因以爲字. 生於黃海道海州. 其先本順興人 及家海州 世爲州吏. 至父泰勛. 讀書爲上舍生 爲人雄傑好奇畧. 太土皇三十一年 於所寓居信川地 遇東學賊之侵擾 起兵擊走之.

안중근은 어릴 적 이름이 應七(응칠)이었다. 가슴에 일곱 개의 검은 점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본래 順興(순흥) 사람인데 해주로 집안을 옮겨 온 뒤로 여러 대에 걸쳐 고을의 벼슬살이를 하였다. 아버지 泰勛(태훈) 때에 이르러 글을 읽어 上舍生(상사생, 생원 또는 진사)이 되었다. 그 사람됨이 웅걸하고 특이한 계획을 좋아하였는데 고종 31년(1984년), 信川(신천)에 살고 있을 때 동학 무리의 침입과 소요를 만나자 병사를 모집하여 그들을 격퇴한 일이 있었다.

重根 自幼少時 讀書之餘 必挾弓矢 弄槍械 習馳馬. 能於馬上射落飛鳥 泰勛之擊賊 常爲先鋒以成功. 弱冠有大志 慨然歎曰 "國家文弱甚 而外憂日深 此非尙武時哉," 家故饒多食指而不肯治產業 出遊傍郡邑 交結俠男 遇兵器之良者 輒購之.

중근은 아주 어려서부터 글을 읽는 틈틈이 반드시 활과 화살을 지니고 총을 만지고 놀며 말달리기를 익혔는데 달리는 말 위에서 날아가는 새를 쏘아 떨어뜨리곤 하였다. 그의 아버지 태훈이 동학의 무리를 공격할 때에는 항상 선봉에 서서 공을 세웠다. 그는 약관 시절부터 큰 뜻을 품고 슬퍼한탄하며 "나라가 文弱(문약)함에 빠져서 외적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무력을 존중하고 키워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집안이 원래 풍족하여 먹을 것 걱정이 없었는지라 생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웃 고을로 돌아다니며 용기 있는 젊은이들과 교분을 터서 사귀고 좋은 兵器(병기)를 만나면 즉시 그것을 구입하곤 하였다.

光武八年. 日本攻克俄羅斯 因侵我韓奪國權. 重根告父曰 "前日我國恃俄羅斯爲援 今也 日本旣克俄羅斯則何所憚而不咋我 然則我之可與爲唇齒者 中國而已 往遊中國 交結才俊 與圖維持 兒之願也." 遂行歷遊上海等地 居數月 聞父喪 還時日本伊藤博文已統監我矣.

광무 8년(1904),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니 그 기세로 우리나라도 침해를 입어 국권을 빼앗기게 되자, 중근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를 "전날에는 우리나라가 러시아를 믿고 구원을 삼았으나 오늘에 이르러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으니 무엇을 거리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즉 우리나라와 더불어 입술과 이빨의 관계에 있는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그러니 중국으로 가서 재주 있는 이들과 교분을 맺고 그들과 더불어 제 뜻을 지니고 펴고자 함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고 청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상해 등 중국 땅 여러 곳을 다니며 머물렀는데 몇 개월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올 무렵 일본의 이등박문은 이미 우리나라의 통감이 되어 있었다.

重根就葬 以平安道三和甑南浦 爲中國往來之要地徙居之 傾家財 起學校于平壤城中 廣募生徒以育之. 間與平壤大俠安昌浩等 入京師 聚西北學校等諸生 敷說國家危急狀 以聳動之. 十一年. 伊藤脅太上皇內禪 隨散京外之兵. 重根 忿憤思恢復 以國中無可措手地 獨俄羅斯海蔘葳之港 韓人多僑居 可與有爲 遂往海參葳 於僑衆中 得俠士關東金斗星·堤川禹德淳等十二人 相與斫指 誓救國 遂以忠義激勸僑衆. 一歲間 得丁壯三百人 授以戰藝 以義兵大將 讓於斗星 而己爲義兵參謀中將 其餘諸人 亦各分署其職.

중근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다음, 평안도 三和(삼화) 鎭南浦(진남포)가 중국을 왕래하기 좋은 요충지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였다. 그리

고 집안 재산을 기울여 평양 성안에 학교를 세우고 생도들을 널리 모집하여 그들을 교육하였다. 그러는 틈틈이 평양의 큰 志士(지사)인 安昌浩(안창호) 등과 함께 서울에 들어가 서북학교 등의 여러 생도들을 모아 놓고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켰다. 광무 11년(1907), 이등은 우리 태상황(고종)을 위협하여 황제의 자리를 (그 아들 순종에게) 물려주게 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과 지방에 있는 우리 군사를 해산시켰다. 이에 중근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라를 회복할 뜻이 있었으나 이미 나라 안에는 활동할 만한 땅이 없었으므로 홀로 러시아의 우라디보스토크항이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 하고 있었으니 거기가 일을 도모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우라디보스토크로 거처를 옮겼다. 거기에서 교포들 가운데 俠士(협사) 關東(관동) 金斗星(김두성)과 堤川(제천) 禹德淳(우덕순) 등 열두 사람을 동지로 얻게 되자 서로 상의하여 손가락을 잘라 나라를 구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충의로써 교포들을 크게 감동시키니 1년 사이에 장정 300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투법을 가르치고 의병대장은 김두성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참모중장을 맡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직책을 나누어 맡았다.

隆熙三年六月. 重根聚兵誓曰 "昔文天祥 以鄉兵八百圖元趙憲以七百儒生而擊倭. 今我衆雖少. 何畏日本 况我國中之義士 在在蜂起 與京外兵士之罷散者相合. 以困日本者 三年矣. 鼓行而前. 響應必多. 公等其各盡力." 遂引兵 渡豆滿江 入慶典郡. 襲擊日本戍兵 斃五十人 進至會寧 爲日本大軍所逆擊衆皆潰散. 重根與二人逸而免 十二日 僅得再食 而歸.

융희 3년(1909) 6월에 중근은 병사들을 모아 놓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文天祥(문천상, 중국 남송의 충신)은 시골 병사 800명으로 원나라를 공격하려 하였으며, 임진란 때 우리나라 선비 趙憲(조헌)은 700명의 유생으로 왜병을 격퇴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적은 수의 병력이지만 어찌 일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義士(의사)들도 벌떼처럼 일어나 서울밖에 흩어져 있던 병사들과 서로 어울리어 일본을 골탕 먹인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북을 치고 행군하여 나아간다면

여기에 호응하는 분이 반드시 많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각기 온 힘을 다하여 싸웁시다." 이렇게 격려하였다. 그런 다음 드디어 병사들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경흥군에 들어가 일본 수비부대를 습격하여 50명을 죽였다. 그다음 회령으로 진격하여 나아가다가 일본 대군의 역습을 받아 온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고 중근과 두 사람만이 겨우 도망하여 화를 면하였다. 그동안 열이틀이나 지내면서 겨우 두 끼의 밥을 먹고 돌아올 수 있었다.

時伊藤解統監任 自以旣得韓 可以進圖淸國. 十月 陽托遊覽來淸滿洲 與英吉利俄羅斯二國大臣 相約會談 於哈爾濱之港. 重根聞而喜曰 "天其送此賊乎." 乃言于德淳曰 "亡我韓者非伊藤耶 聞今將至哈爾濱 願與子圖之." 德淳曰 "諾"

그 무렵 이등은 통감의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스스로는 한국을 이미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청나라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10월에 겉으로는 유람을 한다고 내세우며 청나라 만주를 방문하여 영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대신들과 더불어 하얼빈에서 회담을 갖자고 약속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중근은 기뻐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이 도둑을 (나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하고 덕순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 한국을 망하게 한 것은 바로 이등이 아니겠는가? 소문에 들으니 그가 하얼빈에 온다고 하니 (내가) 그대와 더불어 그자를 처치했으면 한다." 하였다. 덕순은 "좋소이다." 하고 응락하였다.

遂各懷槍 向哈爾濱 至吉林 重根計以爲哈爾濱者 俄羅斯人最多之地也. 欲察伊藤動靜 非得我國人通俄羅斯語者 與之俱不可也. 乃求得劉東夏·曺道先二人 與俱至哈爾濱. 是夜 重根在旅舍 意慷慨以憤 作一歌 述其志以唱之. 歌曰

드디어 두 사람은 각기 총기를 지니고 하얼빈으로 향하여 떠나서 길림에 이르렀다. (이제) 중근이 생각하기를 '하얼빈이란 곳은 러시아 사람이 많은 곳이니 이등의 동정을 살피려면 러시아말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여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고 劉東夏(유동하)와 曺

道先(조도선) 두 사람을 구하여 그들과 함께 하얼빈에 도착하였다. 그날 밤 중근은 여관방에서 북받쳐 오르는 슬픈 마음에 그 울분으로 노래를 지어 자신의 뜻을 밝히며 그것을 읊었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丈夫處世兮 蓄志當奇
時造英雄兮 英雄造時
北風其冷兮 我血則熱
慷慨一去兮 必屠鼠賊
凡我同胞兮 毋忘功業
萬歲萬歲兮 大韓獨立

대장부가 세상을 살아감이여
의롭지 않음을 만나 뜻을 쌓는 것이요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함이여
영웅이 또한 시대를 만듦이로다
북쪽 바람이 춥고 춥다고 함이여
내 피는 오히려 펄펄 끓도다
슬픈 마음 다잡아 한 번 나섬이여
반드시 쥐새끼 도둑을 잡아 죽이리
아아 사랑하는 우리 동포여
우리의 이 성공을 잊지 마시라
만세 만세 우리나라여
대한 독립 만만세로다

德淳以俚歌和之. 明日 重根與德淳·道先同至寬城子 以探伊藤來信 旣而欲辦資金 留二人而還哈爾濱. 則有報云 伊藤明日至 重根晨起 詣車站 立于俄羅斯軍隊之後 以待之.

덕순이 이 노래를 우리말로 풀어 화답하였다.

그 다음날, 중근은 덕순, 도선 두 사람과 함께 寬城子(관성자)에 이르러 이등이 온다는 소식을 확인한 다음, 이미 생각했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그곳에 남겨 두고 하얼빈으로 돌아왔다. 그때 소식이 오기를 이등이 그 다음날 도착한다 하였다. 중근은 새벽에 일어나 정거장으로 가서 러시아군대 뒤에 서서 그를 기다렸다.

重根本作西裝 故軍隊認爲日本人 而莫知爲我人也. 及伊籐至下火車 與俄羅斯大臣握手作禮 禮畢徐步 向各國領事所. 與重根相去未十步

그때에 중근은 평소대로 양복을 입었으므로 군인들이 일본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이등은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려서 러시아 대신과 악수하며 인사하였다. 인사하기를 마치자 그들은 천천히 걸어서 각각 자기네 영사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중근과는 서로 떨어진 거리가 열 걸음도 되지 않았다.

重根素未見伊藤 惟嘗於報紙所載之小像竊識之 乃披軍隊而入擧槍射之 三丸中胸腹. 伊藤遂死 又射伊藤從者三人 亦皆仆. 於是 重根大呼大韓萬歲.(下略)

중근은 평소에 이등을 본 적이 없고, 다만 신문에 실렸던 작은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겨우 그를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즉시 군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총을 들어 그를 향해 쏘았다. 세 발의 총알이 그의 가슴과 배에 명중시켰다. 이등은 드디어 죽었다. 그리고 이등을 수행하던 세 사람에게도 (총을) 쏘았다. 그들도 모두 쓰러졌다. 이때에 중근은 큰 소리로 "대한 만세"를 외쳤다.(이하 생략)

【마무리 하며】

滔滔(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이어지는 말솜씨를 懸河之辯(현하지변)이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전개되는 글은 무엇이라 하면 좋을까? 懸河之文(현하지문)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懸河(현하)라는 말에는

어딘가 怒濤(노도)의 기풍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의연함과 장중함으로 숭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文勢(문세)에는 적합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懸河之文(현하지문)에서 怒濤(노도)의 기풍을 가라앉히고 온화하고 유연한, 그러나 기개를 잃지 않은 고고한 품격의 글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창강의 安重根傳(안중근전)의 문체일 듯싶다.

우리가 張志淵(장지연) 선생의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을 읽다가 이 [安重根傳(안중근전)]을 펴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대일투쟁에 나서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백년을 훌쩍 넘긴 오늘날까지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흘러넘친다는 것이 한없이 서글프다.

일본이여! 그대들은 정말로 우리의 다정한 善隣(선린)이 될 수 없겠는가!

4. 孫秉熙(손병희)의 三戰論(삼전론)

三戰論

而千古之歷史兮 講之以可明 記之以可鑑.

太古兮 萬物兮也 其胡然 豈可然, 贅理而度之 則茫茫乎其遠 感物而致之 則渾渾然無疑.

是故 於古及今 先聖後聖 連絡繼出 帝法王法 同軌一輪, 何者 治異道同 時異規同也. 略擧其由 道本乎天 洋洋乎宇宙者莫非一氣之所幹也.

세 가지 전쟁을 논함

수천 년의 인류역사여! 강습하여 밝힐 수 있고 기록하여 거울삼을 수 있도다. 아득한 옛날이여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여 그것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으며 또 어찌하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치를 헤아려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근원이 아득히 먼 것 같고, 사물을 경험하여 끝까지 따져보면 모두 뒤섞여 알 수 없는 듯 하나 의심할 것은(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한 聖人(성인)이 앞서 나오면 다른 성인이 뒤따라 나와 서로 연이어 계속되었으므로 帝王(제왕)의 법칙들이 하나의 수레바퀴가 구르듯 똑같으니 어찌하여 그런가? 다스림은 다르나 道理(도리)는 같고, 시대는 다르나 규범은 같았기 때문이로다. 그 까닭을 대강 논의하자면 도의 근본은 하늘이니, 온 우주에 가득한 만물이 온통 하나의 기운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이 없음이로다.

雖然 人爲動物之靈 靈之其中 亶有聰明 作之君作之師 玆曷故焉. 唯天無偏 率性者惟親也. 侍天行天 故是曰體天 推己及人, 故此曰道德也.

비록 그러하나 인간은 동물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영장이로다. 그 영장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총명한 이가 있어서 그가 임금도 되고 스승도 되었으니 이것은 또 어찌 된 까닭인가? (그것은) 오로지 하늘이 공평하여 偏僻(편벽)됨이 없어서 타고난 성품대로 따르는 자만을 가까이하는 까닭

이로다. (따라서) 하늘을 모시고 하늘의 도를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이것을 곧 體天(체천, 하늘을 몸으로 삼는다)이라 이르는 것이요, 자기의 경우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경우를 헤아리게 되니 그래서 이것을 도덕이라 하는 것이로다.

光被四表 中散萬事 因時取宜 大抵時中. 變於時用 不失執中有初克終 合爲一理.

영광이 천지사방에 두루 덮이어 그 한가운데에서 만 가지 일을 펼 칠 수 있고 때를 따라 마땅한 방법을 택하니 대체로 이것이 시대에 알맞을 것이로다. 그 쓰임을 잘 운용하여 중심을 잡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치에서 (벗어남이 없이) 잘 부합될 것이로다.

由是觀之 天之於道 豈有間矣, 道之於人 豈可遠哉. 須臾不可離者 此之謂也.

太古之無爲兮 其氣也未發 三皇之基礎兮 道本乎心 五帝之孩提兮 施措於治法. 人氣也 淳厚 民皆爲堯舜

教導以聖道 世莫非堯舜.

이렇게 볼 때에 하늘이 도를 드러냄에 어찌 간격이 있으며 도가 사람에게서 실현됨에 어찌 멀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잠시도 (도에서) 떠날 수 없다고 한 것은 (진실로) 이것을 일컬은 것이로다.

아득한 옛날 한 처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이여, 그 기운이 발하지 아니하였고 세 분 황제께서 기초를 닦으심이여, 도가 본래 마음에서 나왔고 다섯 분 제왕의 손잡아 이끄심이여, 법을 정하여 다스림을 펼치시었도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기질은 모두 순박하고 깨끗하여 백성들은 모두 堯舜(요순) 같은 사람이요, 성인의 道(도)로 가르치고 인도하니 온 세상에 요순 아닌 이가 없었도다.

人道之將泰兮. 人各有人心 惟彼軒轅時之蚩尤 虞舜

世之有苗 背化而作亂 豈可無善惡之別乎.

夫聖人之道 無物不成 能治亂之藥石 干戈刑戮 是也.
是故 及周之盛 其氣也壯大 治隆於上 教美於下 郁郁乎
文物 於斯爲盛 豈不欽嘆處乎.

인간의 도리가 장차 완성됨이여! 사람들은 제각기 사람의 마음도 있는지라 오로지 저 軒轅(헌원)시대의 蚩尤(치우)나 요순시대의 세 개의 미개한 苗族(묘족)들이 교화를 배반하고 난을 일으킨 것이니 어찌 선악의 구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랴.

대체로 성인의 도는 어떤 사물에도 완성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능히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藥石(약석)은 武器(무기)와 刑罰(형벌) 바로 그것이로다. 이런 까닭에 周(주)나라가 발전하였을 때에는 그 기운이 장대하여 정치는 위에서 빛이 나고 교화는 아래에서 아름다워서 문물이 찬란하고 또한 번성했으니 그 어찌 흠숭(欽崇)하여 감탄할 바가 아니리오.

噫 物久則弊 道遠則疏 理之自然 明若觀火. 自是以
後 歷代列國 各修霸業 興廢勝敗 怳若棋局之勝負 此豈
非寒心處乎.

슬프도다, 물건은 오래되면 낡아 버리고 도에서 멀어지면 온통 낯설어지는 것은 이치가 그러함이 불을 보듯 분명하도다. 이러한 때를 지나 역대의 여러 나라가 각기 패업을 닦아서 흥하고 쇠망하는 것과 이기고 지는 것이 마치 장기바둑 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같았으니 이 또한 어찌 한심스러운 것이 아니리오.

雖然 亦是運 亦是命 有何怨尤, 如斯之忖度兮. 理之
飜覆 運之循環 瞭如指掌也. 夫如是則 鑑昔稽古 指今
視今 豈有間於多端哉.

비록 그러하나 이것도 또한 운명이니 무엇을 원망하고 탓할 수 있으리오. 이와 같이 생각하고 헤아려 봄이여! 이치의 뒤집힘과 운세의 돌고 돎이 明瞭(명료)하기 마치 손바닥을 살핌과 같도다. 대체로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이와 같은 즉 옛날을 거울삼아 지금을 살펴보고자 하니 어찌 여러 가지 가닥으로 차이가 있으리오.

是故 古今之不同兮 吾必曰運之變也. 方今 天下之大勢與運偕同 人氣也強莫強焉 巧莫巧焉, 技藝之發達 動作之練習 極盡於此也. 雖然 強非勁兵之強力 就義無屈之謂也, 巧非姦細之巧態 達事乘銳之稱也. 以若利器堅甲 兵刃相接 則強弱相分 人道絶矣. 是豈天理哉.

그러므로 옛날과 지금이 같지 않음이여! 나는 반드시 운수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리라. 바야흐로 오늘날 세계의 대세가 하늘의 운수와 함께 움직이는데 사람의 기운은 강할 대로 강하고 공교할 대로 공교하여서 技藝(기예)의 발달과 몸놀림의 숙달됨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도다. 비록 그러하나 강하다고 해서 군사력의 강력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오, 정의의 길에 나아가 굽힘이 없는 것도 함께 일컫는 것이로다. 또 공교하다고 하여 간사하고 교태를 부림이 아니라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여 매사에 승기를 잡는 날카로움을 일컫는 것이로다. 만약에 날카롭고 단단한 군병기로 서로 맞붙어 싸우면 강함 약함이 서로 분명하여 (약한 쪽이 망하게 되니) 사람의 도리는 여기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을 어찌 하늘의 도리라 할 수 있으리오.

以余不敏 俯仰宇宙之勢 擧世並強 雖欲接兵 同手相敵 戰功無益 此所謂五獸不動也. 然則 兵戰一款 自歸無奈畏尤 甚於兵戰者 有三焉 一曰道戰 二曰財戰 三曰言戰. 此三者能知然後 可進於文明之步 而保國安民 平天下之策 可得而致矣.
是故 請言申之 聊以戰論.

이에 나는 스스로 不敏(불민)함을 무릅쓰고, 우주의 형세를 쳐다보고 또 굽어보니 온 세상이 모두 강하여 비록 군병을 맞상대하려고 하나같은 능력으로 서로 싸우게 되니 그 전쟁의 결과는 아무 이익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일컬어 다섯 짐승이 꿈쩍하지 않는 형세라 이르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병력전쟁 한 가닥은 자연히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나 병력전쟁보다 더 무

서운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첫째는 道戰(도전)이요, 둘째는 財戰(재전)이요, 셋째는 言戰(언전)이로다.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난 뒤에야 문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며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계책을 가히 얻어 그것을 완성할 수 있으리로다.

이에 청컨대 그 내용을 밝히어 그 戰論(전론)을 펼치노라.

【마무리 하며】

윗 글은 삼전론의 서론 부분이다. 여기에서 의암은 이 세상이 무력전쟁으로는 더 이상 인류문화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그 무력전쟁은 궁극적으로 세계사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따라서 의암은 그 대안으로 등장한 전쟁에 道·財·言의 세 가지 전쟁이 앞으로의 세계를 좌우할 새로운 전쟁임을 역설한다.

오늘날의 개념과 용어로 바꾸어 보면, 도는 곧 이념이니 정치·사상·제도 전반을 가리키는 듯하고, 재는 두말할 것 없이 산업·경제이며, 언은 곧 언어문화 전반이니 여기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와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비록 쓰이는 용어가 다르고 표현방식이 예스럽기는 하나 백 년이 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이 음미할 대목들로 點綴(점철)되어 있다.

선각자의 慧眼(혜안)이 놀랍기만 하다.

5. 韓龍雲(한용운)의 朝鮮佛教維新論(조선불교유신론)

朝鮮佛教維新論

序

余嘗有志乎維新佛教 稍有成筭於胸中者 但事不從心未能遽行於世. 試說一無形之佛教新界於區區文字之間 自慰寂寞耳.

내가 일찍이 불교를 새롭게 진흥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점차로 그 뜻이 가슴속에서 영글어 갔으나 일이란 것이 쉽게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어서 갑작스럽게 (그 방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다. 한갓 형체도 없는 불교의 새 세상을 구차스럽게 글로 적어 놓아 보았자 스스로 외롭고 쓸쓸함을 달래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夫望梅之渴 亦養生之一術 此論固梅之影. 余之滅火焚身 則自不得不以一梅之影 當萬斛清泉.

대저 매화꽃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목마름이 역시 그 꽃을 가꾸고 키우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이 논술은 진실로 그 매화꽃의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불을 줄여 몸을 사르는 것은 곧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한 그루의 매화그림자가 되어 일만 섬의 맑은 샘물이 되고자 함이다.

近來佛家 旱魃太肆 未知吾黨 亦有渴者乎. 果有則願以此梅布影相照 聞六度之中 布施爲最. 余亦以此布施梅影之功德 能免地獄也未.

요즈음 불교계는 가뭄이 극심하여 우리 道伴(도반)들 끼리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니 (그들에게도) 역시 가뭄 속의 목마름을 느끼는 이가 있을 것이 아닌가! 과연 (그들에게도) 목마름이 있다면, 원컨대 이 매화의 그림자를 서로 비추어 봄으로써 여섯 가지 수행 가운데에서 布施(보시)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알아듣기 바라노라.

나 역시 이 매화 그림자의 공덕을 통한 보시로 지옥을 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참고

六度(육도) : 여섯가지 수행 즉 六波羅密(육파라밀) ①布施(보시)②持戒(지계)③忍辱(인욕)④精進(정진)⑤禪定(선정)⑥智慧(지혜)

緖論

天下豈有成敗 待人而已. 悠悠萬事 無一非聽命於人而後 有所謂成所謂敗者 苟事而無自立之力 惟人是從事之有成敗 亦人之責任而已.

이 세상에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오직 사람하기에 딸린 것이다. 많고 많은 세상일 가운데 어떤 것도 사람의 뜻[명령]을 따른 후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결정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진실로 일이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이 그 일에 관여하여야 일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니 (일이란) 결국 사람에게 (최종) 책임이 있는 것이다.

古人云 謀事在人 成事在天 質而言之 人有可成之謀而天能敗之 人有可敗之謀而天能成之也. 嗚呼 令人敗興短氣之事 就有過於此哉. 果天能成敗人謀之事 則是使人失其自由也 能使人失其自有者 曾未之聞未之見者也.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풀이하여 말한다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자만하여) 계획한다면 하늘이 그것을 실패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조심하여) 계획한다면 하늘이 그것을 성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하! 사람이 의욕을 잃거나 힘이 모자랄 경우에, 어느 누군들 그 일에 책임이 있겠는가? 과연 하늘은 사람이 계획한 일을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의욕을 잃었을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의욕을

잃었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彼所謂天者 果有形之天歟 抑無形之天歟. 若有形之天也 豈非形於上而蒼蒼入於吾人眼簾者耶. 旣有形體天亦理氣中之一物 服從自由之公例 無所相侵 與他之物 毫無差異 所敢斷言也. 衆生芸芸 其數無量 安有相率而甘聽成敗於區區有形之一物也.

저 하늘이라 하는 것은 과연 형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약 하늘이 형체가 있다면 어찌 위로는 형체도 없이 푸르고 푸름이 우리들 사람의 눈(발)에 들어오는가? 하늘은 이미 형체가 있고 그것은 理(이)나 氣(기) 가운데 하나이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유의 원칙에 따라 理(이)와 氣(기)가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 다른 사물과 더불어 조금도 차이가 없이 존재하는 것임을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중생이 많고 많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찌 서로 지배하고자 다투면서 구구하게 형체가 있는 하나의 사물에 의지하여 성공과 실패를 즐겨 (그 형체로부터) 듣고자 하겠는가?

若無形之天也 天理也 非天也 天理者 眞理也. 有可成之理而成 有可敗之理而敗 斯眞理矣. 然則成固自成敗固自敗. 復何成事在天之可語也. 若是乎有形之天與無形之天 俱無當也. 之云云者 但知有天 不知有人. 纔發其言 其姓名 已入於奴隷之案 何不自愛之甚也.

만약에 하늘이 형체가 없다면 하늘은 (하나의) 원리요, 그냥 하늘이 아니다. 하늘이 원리라면 그것은 참된 원리, 곧 진리이다. 그 진리가 실현될 수 있으면 일은 성공하는 것이요, 진리가 실현될 수 없으면 일은 실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리이다. 그러므로 성공은 진실로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요, 실패도 스스로 실패하는 것이니 어찌 또다시 일의 성공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형체가 있는 하늘이나 형체가 없는 하늘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오직 하늘이 있음을 알되

사람이 있음은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이는) 겨우 그런 말을 하고 자기 성명을 종살이하는 명단에 올려 놓을 뿐이니 어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아니할 것인가?

若使文明人 起此云云者於千年塚中 責之以放棄自由之罪 雖欲辯護 無從而得之. 苟天之無救於事之成敗也.

若是則萬物 雖多 視此而已. 無寧曰 謀事在我 成事亦在我 知此義者 責己不責人 自信不信物 天下談事者 皆當以此法 爲宗旨可也.

만일에 문명 개화한 사람이 천년세월이 흐른 무덤 속에서 일어나 이런 말을 하게 하여 자유를 내버린 죄라고 그 책임을 물으면 비록 그를 변호하고자 하여도 결코 변호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로 일의 성공과 실패를 하늘은 도와줄 수 없다. 만약에 도와줄 수 있다면 만물이 많이 있어도 그것이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일을 계획하는 것도 나에게 있고 일을 성공시키는 것도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 뜻을 안다면 이미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물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있는 것이니 천하에 일을 하겠다고 논의하는 이들은 모두 마땅히 이러한 논리로 으뜸 원칙을 삼는 것이 옳으리라.

【마무리 하며】

머리글(序)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건 간절하게 사랑하고 소망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매화 꽃을 매개로 풀이하고 있다. 논리적인 서술에도 이렇듯 비유의 詩心(시심)이 묻어 있다. 시인 萬海(만해)의 면모가 내비치지 않는가!

그리고 서론에 이르면, 다시 한 번 만해의 식견과 의지에 놀란다. '하늘'이 있건 없건, '하늘'이 인간사를 주재하건 아니하건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열화와 같은 논변에 우리는 압도될 뿐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熱血志士(열혈지사)가 삐뚤어진 세태를 향하여 獅子吼(사자후)를 터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끝으로 꼭 한 가지 더 지적하여야 할 사항 그것은 이 글의 문체이다.

序(서)를 제외하고 서론에서 결론까지의 본문이 모두 懸吐(현토)를 붙였다는 점이다. 이 현토를 조금 더 발전시켜 語順(어순)을 우리 말대로 바꾸고 현토를 자연스런 조사나 어미로 바꾸면 그것이 곧 예스런 國漢混用文(국한혼용문)이 된다. 따라서 만해는 그의 다양한 저술을 통하여 純正漢文文體(순정한문문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님의 沈默(침묵)」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려한 純(순) 우리말 문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체를 순차로 보임으로써 우리나라 文體變遷史(문체변천사)의 산 증인이 되는 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서론에 쓰인 현토를 모두 삭제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완미한 한문인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

6. 申采浩(신채호)

謝卞山康榮晩書

春雨餘 敬承古友手法 沈讀數三 得不慰頌之源源. 而矧審恭廬啓處 無諸委曲 易安考槃 動合禮數者乎. 日自漢南來者 輒言 山康先生居廬展墓 恪遵古禮. 是實士君子之常分 不足爲先生慰賀, 但以世道動盪 視禮典如弁髦 故先生之謹尋古禮 騰佗行人之口耳. 然先生 未必據苫啜素禁房 一一拘禮 而克謹矣. 讀至此先生不嚬而開眉 幸就甚焉.

봄비 내린 끝머리에, 예 친구의 친필편지를 공손히 받아 두 번 세 번 깊이 읽었습니다. 어찌 그 위로의 말씀이 간절하고 간절치 않겠습니까? 하물며 집안에서 편히 지내심에 별다른 곡절이 없고 그저 평안히 즐기신다 하니 모두가 예절과 운수에 맞는 일인가 합니다. 일전에 남녘에서 온 사람이 문득 말하기를 山康(산강) 선생이 초막에 사시면서 묘를 지키심에 각별히 옛날 예법을 따르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사군자의 떳떳한 도리인지라 (그것을 두고) 선생께 위로와 경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으나, 다만 세상 삶의 자세가 급변하여 禮典(예전) 믿기를 허접쓰레기(더벅머리)처럼 여기는 까닭에 선생이 옛날 예절을 정성껏 찾으심이 저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일 뿐인가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거적자리에 앉고 소찬을 먹으며 房事(방사)를 금하는 등 일일이 禮度(예도)에 구애될 필요는 없으실 터이나 지극히 근신하시겠지요. 이 글월을 읽다가 여기에 이르러 선생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눈썹을 치켜 올리며 웃는다면 진정코 다행이겠습니다.

丹齋公七七齋辰 招京洛友生 致奠恭廬之側 是多古人友篤之情禮 慰何可已. 然以吾觀之 祭丹齋之英靈 正形式而已, 實惟先生之自祭及祭文苦衷矣. 固無陶元亮之自挽詞 賈浪仙之自祭詩者耶. 悲惋之氣 令人動心. 且丹齋公與石衲二十九年前

京東塔幸寺 有一面之奮嗣后 在幽燕時 相照一往復及詩詞 而詩未脫凡品 墨是塗鴉 則但其翰墨 不能稽石衲之顧, 獨佗史學與奇節 孰不欽服 且欲無言.

丹齋公(단재공)의 49재 날에 서울 사는 친구들을 불러 그 효성스런 초막 옆에서 제사상을 차린다 하니 이것은 선생이 친구들과의 돈독한 우정에 정겨운 禮(예)를 갖춘것인즉 어찌 위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 丹齋(단재)의 영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만 사실은 선생이 몸소 제사음식을 장만하는 일과 祭文(제문)을 짓는 일에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陶元亮[도원량, 陶淵明(도연명)]의 自挽詞(자만사)와 賈浪仙[가낭선, 賈島(가도)]의 自祭詩(자제시)가 아니겠습니까? 슬프고 한탄스런 느낌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실은) 단재공과 이돌중[石衲]과는 29년 전에 京東(경동) 塔幸寺(탑행사)에서 한번 만난 옛 인연이 있습니다. 그 뒤에 북경에 있을 때에 서로 한 번 글을 주고받았고 詩詞(시사)도 보았는데 시는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글씨도 까마귀를 칠한 듯하니, 그의 글과 글씨는 이 돌중의 관심을 끌만하지 않지만, 오로지 그의 史學(사학)과 기고한 節槪(절개)는 그 누가 우러러 감복치 않겠습니까? 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先生荐荐有文印字 貺我神悅 石衲無以報瓊 獨將無文素紙以呈似 先生可會麼. 從今休休文章機緣 參決無文之一着公案一來娑婆 有所可爲, 如未更須三十年始得. 呵呵 姑閣.

丙子 三月二十一日

선생이 거듭하여 보내주신 有文印字(유문인자)는 나에게 신령스런 기쁨이 되었으나, 이 돌중은 귀중품으로 보답할 수는 없고 글 없는 흰 종이를 대신 바치오니 선생은 이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문장의 機緣(기연)을 끊어버리고 글 없는 한 벌의 公案(공안)에 參決(참결)하여 한 번 세상에 태어난 일에 합당한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그것도 아니 된다면 또 다시 30년은 기다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하 여기서 붓을 멈춥니다.

병자년(1936) 3월 21일

附 山康來書

稽顙白 石顚尊師 一紙呈似 畏蒙奬借 實逾所圖 而第見筆墨蒼落 浩氣橫海 不知其爲出於老人之勞也. 喜賀喜賀,

이마를 조아리고 엎드려 아룁니다.

石顚尊師(석전존사)님, 편지 한 장을 올렸더니 송구스럽게도 칭찬의 말씀을 들었으니 실로 (그 고마움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온데 (존사의) 필묵이 싱싱하고 기세 있어서 그 浩然之氣(호연지기)가 바다를 건넌 듯함을 뵈오니 그것이 노인의 수고로우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쁘고 또 기쁘옵니다.

因不敢不襮者 去十八日 實丹公離世第四十九日

無所洩懷 請來京中畸友數人 自設一祭於敝廬.

陳文以薦之, 尊函 巧以當刻抵着 而揭末「忘勞五色鏡 有月天外涼」十字 無限得意 且足以悅神 故並以陳諸靈是矣. 祈幸慈燭.

丙子 三月二十一日

그러하옵고, 감히 숨기지 못하올 것은 지난 18일은 실로 丹齋公(단재공)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의 날이라 감회를 풀 길이 없어 서울사는 동지 몇 사람을 초청하여 소생의 陋屋(누옥)에서 祭床(제상)을 하나 차리고 薦度(천도)의 글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때에 공교롭게도 존사의 글월이 때맞추어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詩賦(시부)의 끝 구절 "忘勞五色鏡(망로오색경) 有月天外凉(유월천외량)" 10字(자)는 깊은 뜻을 드러냄에 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령이 기뻐할 것이라 여겨 靈位(영위) 앞에 陳設(진설)하였습니다. (존사께서도) 명복의 촛불을 켜주시기를 빌겠나이다.

丙子(병자) 3월 21일

忘勞五色鏡(망로오색경) 근심 잊은 (저 세상은) 거울처럼 찬란하고

有月天外凉(유월천외량) 때마침 솟은 달은 하늘밖에 시원하네

【마무리 하며】

이 두 편의 書簡(서간)을 읽으며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앞의 글과 뒤의 글은 각각 石顚(석전) 스님과 山康(산강)선생이 쓴 것인데 공교롭게도 발신일이 똑같은 丙子(병자) 3월 21일이다. 그러니까 丹齋(단재) 49재에 관한일은 齋(재)를 지낸 3월 18일 이전부터 書札(서찰)을 주고받은 두 분뿐만 아니라 주위의 뜻있는 지인들에게 공지의 사실로 알려지고 논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아마도 그 49재는 우리 조선의 지사들에게 以心傳心(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민족의 독립기원재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그 시절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의기투합하였었다.